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살며 걸리는 문제 근본에 맡겨 해결

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문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된 것은, 동생이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암으로 진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렇게 고통을 호소해 오는데 제가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디. 스님, 제가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동생을 빨리 입어서게 할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도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야 살릴 수 있겠지요. 막히는 것에서부터 의사의 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들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 모두 죽는 줄 알거든요. 전부 가져없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벌써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식구들도 다 죽었구나.' 하고 미리 생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이런 정답입니다.

그런데 암이다 암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떠나서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하고 그냥 한 군데로 몰아 넣어 가면서, 먹는 거라든가 간호하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잘 해 주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암이다 백혈이다 해서 다 죽게 된다고 하는데 내 안의 근본을 믿고 공부하면서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마음 공부를 해서 집념이 강하니까. 모두 그렇게 이끌어 주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라 해도 또 그것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40% 한다면 60%, 70%는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대치가 돼요. 가만히 보면요, '아휴! 그까짓 것 아무리 해 보면 뭘해. 이제는 죽는다는 데 기다리라고 있을 뿐이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병원에 가지더라도 내 한마음 주인공으로 인해서 병이 나기도 했고 병이 나올 수도 있다' 하고 말하면 악성이 해도 양성성이 된단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 병도 생명이 있고, 병도 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명계에서 올 수도 있고, 세균에서 올 수도 있고, 염보에서 올 수도 있고, 유전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해야만 악성이 무너지고, 마음 자체가 변해서 돌아가니까 악성이 없어지면서 양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빨리 치료되고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게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아이하게 일체 만법을, 생활을 이끌어 주는 자체는 여러분의 주인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하는 도리를 평소애 가르쳐 줘야 해요. '우리 집은 모두들 괜찮으니까' 이러지 말구요.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편안하게 살다가도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그대로 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하는 도리를 배워서 미리미리 하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게 대처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자기를 이끌고 갈 때 벌써 잘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든 애들한테도, 하다 못해 감기가 들더라도 '이 감기 갖게 하는 건 주인공밖에 없다. 네 주인공한테 관해.' 이렇게 자주 가르치면 은연중에 어린 애들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른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고 나가게 된다고요. 그건 어른이 가르치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야 밥 제가 먹고 살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모가 해야 해서 먹는 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관해야겠지만, 주위 가족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정말 죽어든 살리든,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밝혀 주는 것은 나를 형성시켜 놓은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환자를 이끌어 주세요.

천차만별 세상이 생김 까닭

문 제 생각에는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도 한마음 자리, 또는 주인공이라는 우주의 설리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아주 완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것에서 어찌하여 이런 우주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윤회가 생기고 또 업보가 생기고 또 부처도 생기고 중생도 생겨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웃고 울며 돌아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래 아주 맑은 거울에 왜 때가 끼었으며 또 그 때를 다시 벗겨내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 근원적인 문제를 질문하셨네요. 본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육조 선사께서 '물이 없는데 거울이 어디 있으며 거울이 없는데 먼지 앓을 자리가 어디 있는나.'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때가 없어서도 아니고 있어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하면 없는데 치우치고, 있다고 하면 있는 데 치우치기 때문에, 없어서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마치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먼지 앓을 사이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무(無)라고 했던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리 빨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사랑적 마음은 이런 게 어찌니 저런 게 어찌니, 내가 했으니 내가 했으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업보가 되고 또는 유전이 되고 윤회에 고평달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끊어서 부스럼을 내고 아프라고 울고, 또는 끊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고 관한다면, 이것은 본래로 일치되어 있는 한마음의 부(父)와 자(子)가 상봉할 수 있는 계기를 삼지 못하게 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심봉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고 프로펠러라고 따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 하면은 그냥 그 사람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듯이, 또 프로펠러라고 부르면 그 프로펠러 속에 심봉이 들어 있듯이, 물질적인 것은 심봉이 보이지만, 이 색신 속에는 심봉이라는 것이 내용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짙 수도 없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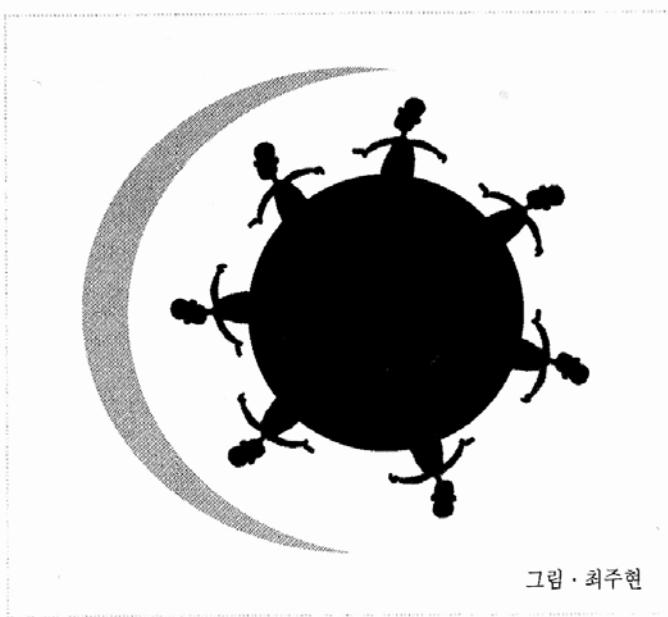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 자리 밝아 먼지 앓을 새 없어

닥쳐오는 모든 걸 '나'로 보고 놓아라

도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여여하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이 붙을 자리도 없고,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그냥 공해 버려서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야까 팔짱듯이 마음으로 지어서, 인연을 끌어당겨서 만들어졌다면, 그것도 거기가 되놓는다면 입력된 것은 다 녹아버리고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서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건데, 본래 진리가 그런 건데 거기 먼지 앓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죄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업이 있다고, 때가 끼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본래로 밝아 있는 근본에 자주 돌려놓다 보면 틀도 없고 먼지 앓을 사이도 없는 주인공의 자리를 그대로 쳐들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음공부중 가장 중요한 점

문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서 인연을 짓기가 무척 힘들고 또 참다운 스승님을 만나고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불의 길에 이르는 게 더욱 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갖기 전에 한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답 부처님께서도 당시는 부처고 우리들은 중생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없다는 얘깁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전자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으로 보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 보니까 안타까운 거지, 내가 잘 알고 저 중생은 모자라고 불쌍하다고 하는 건 절정된 거지말입니다. 이 뜻을 아

시겠습니까? 나 아님이 없다고 할 때 바로 둘이 아닌 겁니다. 수 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돌아 나올 때 어떤 거는 안되어 봤을 것 같습니까? 아주 하찮은 마름, 또는 곤충에서부터 진화해서 화하고, 화해서 진화되고 나면서 이 세상에 출현했을 텐데 어떤 것이 안됐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가 전자에 거쳐온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두를 봐도 남의 잘못 같지 않고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눈물이 나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더불어 눈물이지 나 혼자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의 눈물입니다. 개별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진짜로 여기저기 끄달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 내면의 탐구명, 그 한 구명밖에 없는 신체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탐구명이라고 하는 자체도 방편입니다. 가르치려니와 탐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탐구명이라는 이름 없는 그 이전을 탐구명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탐구명에 들어와도, 많은 거를 다 들여봐도 두드러지는 법이 없고, 다 끄집어내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묘하고 광대해서 삼천대천세계에, 과거 현재 미래 대천 세계에, 우주 전체가 다 체가 없는 마음 속에 자리를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러지지 않고요, 일문 쉽게 말해서, 물을 몇 그릇 갖다 바다에다 부어 보세요, 물이 줄어드나, 그와 같습니다.

이 공부를 안하고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니깐 그냥 이걸로만 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생활을 잘하면서, 그대로 생활 자체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어디까지나 공으로 떨어

지게 하지도 말고 물질로 흐르게 하지도 마라 이겁니다. 정당하게 생각하고 뛰면서,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가 참선입니다. 그대로. 그게 도심이구요.

그러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라, 또는 이것저것 다른 중요한 것들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닷물이 퐁퐁이라고 버리고 새 물이라고 취하는 법이 없듯이, 그대로 닦쳐오는 모든 것을 다 포섭하여 나 아님이 없게 놓아 나가는 생활을 하신다면 그 속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진정 알게 될 겁니다.

마음과 부딪침이 많습니다

문 힘들 때나 궁극한 것이 생기면 이렇게 찾을 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게, 답답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비추어 주는 밝은 빛을 향해 나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막아서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이 빛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그림자도 만나지 않았을 것을, 하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제 생각이 옮긴 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생각의 차이로, 각자의 차원의 차이로 인한 부딪침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선원과 인연 닿아 공부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반들도 나름대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반들과 만나서 또다시 인과를 짓고 업을 쌓아 창고에 저장하느니, 모르는 예언으로 돌아가 마음을 추스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저 모습도 지난날의 내 모습이야.' '그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하고 나와 상대를 동격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했으니 다시는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 라고 관하지만 응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냥 하고 나가면 될 것을 왜 자주 따지고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대해 자제가 되려는 지난날로 되돌리고 싶지는 않지만 용서가 안됩니다.

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달아 버린 가슴으로 무슨 관이 되겠습니까? 내가 관을 하든지 하지 않든 태양은 떠오르고 지구는 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말 어디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맞는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많은 분들이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었는데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 그만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싶기도 할 거고,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잘 쓸 걸 하기도 하고, 그 덕분에 내가 배웠지,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참 그때 모자랐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것이 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그 옴매인 마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좀더 마음을 어떻게 해 볼 것을... 하는 마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닦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발버둥을 치고 왜 내가 이런 인연으로 꼬였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힘겨워 합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닌 데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속는 거죠, 그

모습예요. 힘들다고 하는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바다에 가 보세요. 바다는 맑은 호수처럼 조용하다가도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일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자면 바다는 조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파도든 다 같은 바다입니다. 그 물은 파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얼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는 성질은 어느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바닷물의 여러 다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요, 그리고 진리와 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마치 바람이 자면 바다가 조용하듯이 마음이 조용해지면 망상이 가라앉았다고 하고, 바람이 일면 바다에 파도가 일듯, 마음이 산란하면 망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와 같이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신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선을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바다와 파도의 근본이 둘이 아니듯, 본래 망상과 보리도 둘이 아니므로, 망상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놓아버려야만 진정 '나'도 없고, 본래 망상도 없지는 것입니다. 만약 분별을 다 놓고, 놓는다는 것조차도 놓고 폭 쉬지 못한다면, 일일이 모든 것에 끄달리게 되어서 보는 대로 분별되고, 보는 대로 망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단을 바꿔 주세요) 모든 것을 나라고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당했다고 하고, 내가 즐겁다고 하고, 내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보는 대로 고가 착착 붙죠. 살면서 새록새록 나타나는 고통을 혼자 짊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고통은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요, 그러니 그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자기 몸중에도 빼 놓지 않고 주인공인 거죠. 모든 것을 더불어 같이 한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한 속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죠. 자기 혼자 아니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동체(同體) 속에서 더불어 했으니까, 너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맡겨서 해결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잘못된 거를 해결을 해야지, 내가 혼자 산다고 하고 깨닫거리니까 '흥, 너 혼자 했으면 너 혼자 맡아라.' 이라고 그냥 다 안겨진 단 말입니다. 안겨지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도리를 진실히 믿고 그대로 해 나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별하여 고집하고, 저렇게 분별하여 고집한다면, 언제 실상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실천하는 무심법행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 세상, 이 통 속에 갇혀 사는 그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통을 자유자재로 굴리며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 세포 소중한 느낌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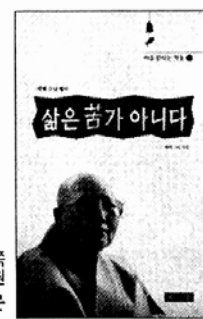
문 얼마 전에 심한 심적 갈등을 겪다가 스님께 질문을 올렸었는데, 이제 문득 가슴이 평하도록 느꼈던 그 느낌을 말씀드리고 다시 글을 올립니다. 선천적으로

20면으로 계속

가짜로 인연을 맺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에시이루